



버려진 철제주조공장의 반전 춤추는 클림트 '키스' 황홀경

낡은 폐산업시설이 첨단 미디어 아트를 만났다. 파리의 오래된 철제 주조공장을 미디어 아트센터로 변신시킨 '빛의 아틀리에'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훈데르트 바서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 미디어아트 도시를 꿈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

<6> 파리 '빛의 아틀리에'

파리=글 사진 김미은 기자

어렵게 길을 물어 전시장에 도착하니 매표소 문이 닫혀 있다. 요즘 파리의 '핫 플레이스'라더니 더 이상 표를 팔지 않는 건가 당황했는데 다행히 오후 4시부터는 인터넷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비슷한 처지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티켓을 예매하고 몇명이 그에게 입장료(16유로)를 전달했다.

솔직히 전시장 앞에 도착했을 땐 실망스러웠다. 폐공장을 활용한 공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규모도 생각보다 적은 듯했고 건물 외관도 클림트 작품이 실린 플래카드 뿐 별 특징이 없었다. 반전은 낡은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펼쳐졌다.

9월말 찾은 프랑스 파리 디지털 아트센터 '빛의 아틀리에(Atelier des Lumieres)'는 구스타프 클림트, 훈데르트 바서와 에곤 실레의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의 경험이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바닥으로는 나무가 일렁이고, 사방 벽면은 운룡 꽃밭이다. 어디로 눈을 돌려야할지 모르چه '빨려들듯' 안쪽으로 들어섰다. 5m가 넘는 높은 천고와 900평에 달하는 공간이 모두 '캔버스'다. 프로젝트로 벽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이룸으로 들뜬 수많은 명화를 사방에 쏟아내기 시작한다.

파리 11구 지역에 자리한 이곳은 당초 철제주조공장이었다. 산업혁명 시기인 1835년 문을 연 공장은 지난 2000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 관람객들은 넓은 공간을 거닐거나 바

5m 높이 900평 공간은 캔버스 음악 어우러진 명화 영상 투사 폐공간·첨단 미디어아트 조화

11월 16일 제주 옛 군사병커 세번째 프로젝트 '빛의 병커'

다에 자유롭게 앉아 작품을 감상중이다. 벽면에 기대 앉은 이들도 눈에 띈다. 2층 공간은 전체 작품을 조망할 수 있어 좋다.

클림트의 황금빛 '키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터져나온다.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버린 '유디트'의 관능적인 모습을 등장시키고, 고아한 매력의 '아멜레 블로흐-바우어', 화사함의 극치를 선사하는 클림트의 꽃그림에 눈이 황홀하다.

낡은 폐시설을 첨단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변신시킨 '빛의 아틀리에'는 프랑스 문화유산 및 예술 전시 공간 통합 서비스 기업 '컬처 스페이스'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들이 이룸불인 아미엑스 (AMIEX: Art & Music Immersive Experience·예술&음악 몰입형 체험)는 폐광산 등 폐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매핑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아트다. 100여 개의 비디오 프로젝트가 이미지를 만들고, 수십 개의 스피커가 웅장한 음악을 선사한다. 멀티미디어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첫 작품은 2012년 프랑스 남부 레



'빛의 아틀리에' 서 만나는 클림트의 대표작.

보 드 프랑수아 지역에 문을 연 '빛의 채석장(Carrieres de Lumieres)'이다. 1935년 문을 닫아 80년간 버려졌던 공간은 첨단 문화공간으로 거듭났고 개막전 '고갱, 반고흐, 색의 화가들' 등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매년 6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

현재 '빛의 아틀리에' 전시는 3가지 테마로 진행중이다. 서거 100주기를 맞은 클림트(1862-1968), 오스트리아가 낳은 작가 훈데르트 바서(1928-2000), 그리고 현대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다.

알록달록 동화적 느낌이 강렬한 바서의 작품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색감이 어우러져 흥미롭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면 바닥에도 물이 고이는 듯하고, 장난감 기차가 움직이는 그림을 보고 입으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또 각종 기호와 추상적 이미

지를 활용한 현대 작품 'Poetic A.I.'는 고전 명화와는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클림트다. 30여 분량의 영상은 '황금시대', '클림트와 자연', '에곤 실레', '클림트와 여성' 등 6개 주제로 나눠 다양한 작품들을 쏟아낸다. '베토벤 프리즈'의 웅장함과 초록색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화,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팔라스 아테나' '다나에' 등 대표작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온 전시장을 채운다. 사이사이 클림트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의 사진도 보인다.

무엇보다 완벽한 음향시스템으로 듣는 음악은 짝 클래식 연주회에 온 기분이 든다. '키스', '유디트' 등의 작품이 나올 때 베토벤과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흐르고 레하르의 오페라 '유디트' 중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이 흘러 나오면 관람객들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낀다.

원작을 보는 느낌과는 다르지만 분명,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전시임은 틀림없다. 관람객들은 여러차례 반복해 관람하며 자리를 지킨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또 음악과 작품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 감동을 전한다. 나 역시 문을 닫을 때까지 2시간을 꼬박 머물렀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오지 않음을 후회하며.

다음달에는 이들의 세번째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장소는 저 멀리 대한민국 섬 제주다. '빛의 병커(Bunker de Lumieres)'라는 이름으로 문을 여는 곳은 제주 성산읍의 옛 군사병커. 한국의 (주)티모넷이 컬처스페이스와 협력, 10년 동안 병커를 임대해 운영하며 개막전으로 '빛의 병커: 클림트' (11월 16일 개관)전을 연다.

/mekim@kwangju.co.kr



광명동굴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쇼 전시영작 '빛의 페스티벌'.

폐광의 변신 경기도 '광명동굴' '미디어 파사드쇼'로 차별화

경기도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된 '광명동굴'은 오래된 폐광을 개발한 공간이다.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개발한 후 1972년 폐광됐고 이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여왔다. 2011년 동굴을 매입한 시는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 2015년부터 유료 공간을 오픈, 지금은 연간 14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와인동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콘텐츠와 다르게 광명동굴의 차별화된 아이템은 '미디어 파사드' 쇼다. 개관 당시 공연 등이 열린 공간에서 지난 2017년부터 동굴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시간 당 3회씩 상영되는 작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시영작가의 '빛의 페스티벌'이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영상은 동굴 구조를 적절히 활용했다. 불을 든 인간의 모습에서 시작된 영상은 환희에 찬 인간의 모습을 화려한 빛과 함께 표현해 내 인상적이다.

광명동굴은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질랜드 웨타위크스튜디오와 판타지 페스티벌도 열고 있으며 동굴안에는 웨타가 직접 제작한 공룡과 실물 크기의 골렘도 전시돼 있다. 동굴 입구에 지난해 설치한 대형 LED 미디어 타워는 가로 16m 세로 22m 규모로 관람객들이 태블릿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워에 송출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